

최창석 △기획협력실 기획협력팀장 허진옥 △
 경영지원본부 경영전략팀장 이철구 △경영지원
 본부 기획예산팀장 배한중 △경영지원본부 흥
 보팀장 이철호 △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 행
 정총무팀장 신경호 △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
 재무관리팀장 이재창 △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
 실 정보통신팀장 표홍섭 △사업본부 건설사업
 실 건설운영팀장 오세풍 △사업본부 건설사업
 실 설계기술팀장 이상훈 △사업본부 건설사업
 실 건설기술팀장 정성태 △사업본부 사업전략
 실 사업기획팀장 박규완 △사업본부 사업전략
 실 사용후연료팀장 최병일 △운영본부 운영관
 리실 운영관리팀장 이대기 △운영본부 운영관
 리실 운영기술팀장 정의영 △운영본부 운영관

리실 안전평가팀장 박주완 △월성원자력환경관
 리센터 행정지원팀장 최동철 △월성원자력환경
 관리센터 건설관리팀장 김두행 △월성원자력환
 경관리센터 부지구조팀장 윤시태 △월성원자력
 환경관리센터 지역협력팀장 김용식 △월성원자
 력환경관리센터 운영실 인수운영팀장 임석남
 △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운영실 인수검사팀
 장 성석현 △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운영실
 방사선안전팀장 김종형 △월성원자력환경관리
 센터 운영실 방재환경팀장 임중대 △월성원자
 력환경관리센터 품질관리팀장 송승훈 △방폐물
 기술개발센터 처분기술팀장 이은용 △방폐물기
 술개발센터 수송저장팀장 이경구 △방폐물기술
 개발센터 RI관리팀장 최광섭

원 산 소 식

2009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

2009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1월 16일 오전 8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
 드홀에서 개최되었다.

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
 장관을 비롯하여 박궁식 전 과학기술처 장관,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정부와 산·학·연의 원
 자력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.

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원자력계의 성과와 결실을 높이 치하
 하고 “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원자력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2009년은 다가올 반세기를
 이끌어갈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기적인 해가 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또
 한 “앞으로도 원자력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에 따
 라 정부는 소듐냉각고속증식로(SFR) 및 초고온가스로(VHTR) 등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본
 격적으로 진행할 것”이라면서 “원자력계가 인화 단결하여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녹색 성장과 경제 살
 리기가 활기 있게 추진되도록 앞장 서 달라”고 주문하였다.

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원자력 산·학·연을 대표하여 연설한 개회사에서 “원자력산업이 제2
 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
 서 신규 원전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인
 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”면서 “금년은 원자력의 수출 산업화 원년으로 관련된 단
 체의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
 서 반드시 1기 이상 수출이 달성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”고 말했다.